

우애 · 나눔 · 보은 · 행운

남원 흥부제, 내달 19일부터 3일간 개최... '흥' 판 만들기 중점

남원시는 지역의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26회 흥부제를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을 주제로 사람의 광장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흥부제는 나눔행사, 기념행사, 공연·경연,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21개 종목으로 나눔의 흥부문화를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흥(興)판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흥부제는 나눔행사, 기념행사, 공연·경연, 연계행사 중점을 두었다

첫날인 19일에는 3일간의 흥부제를 여는 개막식이 저녁 6시 30분 사람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리고, 식전 공연으로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과 기념식에서는 남원 시민의 장과 우애와 사랑의 흥부가족상 시상식이 열린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남진, 박상철, 김용립, 더보이즈, 노라조, 카밀라 등 인기 대중가수들이 출연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 흥부제는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한다는 복안으로, 행사장 곳곳에는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하고, 축제 둘째날인 20일 저녁 7시 사람의 광장 흥부놀이무

한마당에서는 한영애, 자전거 탄 풍경, 소리새' 등 7080가수들의 가을밤 콘서트가 열린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20일과 21일 두 차례 수준 높은 축하공연과 폐막공연을 펼치고,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흥부놀이터가 마련된다.

남원의 자랑거리인 신관사또부인행차와 예촌예술단의 사자탈춤 서커스 마임 등 특색있는 볼거리도 제공하

고, 사람의 광장 옆 관광단지 주차장 흥부장터에서는 알뜰장터와 막걸리? 추어탕부스, 푸드트럭이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한다.

이밖에도 흥부의 나눔 정신을 재현하는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 및 각 읍면동 농약단의 흥을 겨루는 흥부풀 남원농약경연대회, 남원국제도에 캠프,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문내고 데려오자'

임실군, N치즈축제 SNS로 '홍보' 나서

임실군의 대표적 홍보수단으로 급부상한 SNS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8 임실N치즈축제'의 홍보대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임실군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2018 임실N치즈축제~ 소문내고, 데려오자'라는 타이틀로 바이블을 진행한다.

이벤트는 모두 세가지다. 20일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너란 축제, 매력덩어리야~'를 테마로 상세한 축제 소개와 일정, 셔틀버스 운행, 축제 영상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을 주도한다.

여기에 '어서와, 이런 어메이징한 축제 처음이지'라는 타이틀로 돌쇠와 함께하는 축제 먹거리 투어와 치즈오남매와 함께하는 이색 프로그램 탐방 등 소개로 참여를 유도한다.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소문내고, 데려오자' 코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96명을 선정해 4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세트와 치즈, 주유상품권 등 경품을 쓴다. '이거 실화냐, 오감이 만족하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가운데

/임실=진홍영 기자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자 중 임실 치즈역사의 5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적극 소문내주는 참여자 51명을 선정, 아이스크림 세트를 보내준다.

'데려오기' 이벤트는 지난 해 기록인 45만명을 돌파하지는 의미에서 축제장에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참여자 중 45명에게 대표 특산품인 스트링 치즈를 선물한다.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임실군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린 방문객 중 총 50명을 선정, 오고가는 교통비 부담을 배려하는 차원의 삼만 원권 상품권도 경품으로 내놓는다.

이번 SNS 이벤트는 임실N치즈 축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페이스북 등 이용자를 통한 축제홍보는 물론 직접 축제장을 방문, 유도하지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임실군청 페이스북은 감사와 이성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기획을 선보이며, 온라인 홍보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 매 아 리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부역량 강화교육 추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오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인 1004재능기부단이 진행하는 밤을잇는농부 역량강화교육을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객관리 기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농작물을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마케팅 할 수 있는 농민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의 밤을잇는농부 72명이 참여하며, 일명 '꿀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1004재능기부단 단장인 김용근 강사는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만 있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농가들이 1차적인 생산, 판매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SNS를 활용 소비자와 소통해 이익창출과 농장 경영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순창군의회(정성균 의장)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35회 제1차 정례회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결의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92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정례회를 마치고 정성균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심의 의결된 사안을 토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순창군 공무원의 공직기강의 확립과 대주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군 전체 공직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의 년 1회 정례회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문화가 숨쉬는 순창, 꽃을 피운다

군, 문화융성정책 '각방'

순창읍 유스호텔 건립 추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활

순창군이 문화융성 정책으로 꽃을 피우면서 문화적 삶의 질은 높아지고 문화부흥의 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다. 문화정책은 순창군이 민선7기 6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민선 5기와 6기에서도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하드웨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가 잘 융합되어 문화에 풍성함을 더했다.

육천미술관은 2016년 개관 이후 박남재 화백, 강남구 화백 초청전 등 다양한 기획전으로 미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순창군은 민선 7기에도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유스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 있는 향토회관에서는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사활을 걸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순창지역 문화 부흥의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선진국일수록 인문학이 부흥하고 문화가 높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만들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군민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순창읍 문화부흥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치매선도학교 지정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형진)가 치매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적극 나섰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확산하고자 한국치즈과학고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은 지역 내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활용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식 후에는 치즈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 파트너 교육을 PPT 및 동영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조부모님들의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부모님들의 치매예방 생활습관을 강화하는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 천년송 전통혼례 신청자 모집

천년송 전통혼례식은 뱀사골 단풍시기 11월 4일에 진행

혼례예복 사진 동영상 10월 23일까지... 하객 중식비도 지원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점현, 이하 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인 와운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에서 개최되는 전통혼례식 신청자를 모집(063-630-8932)한다.

천년송 전통혼례식은 뱀사골 단풍시기에 맞춰 11월 4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원향교가 행사를 진행하며,

신청자에게는 혼례예복, 상차림 등 전통혼례 진행물품 및 전문인력과 함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객 중식비도 일부 지원된다.

신청 대상지는 남원시 거주 본인 및 자녀에 한정되며, 실제로 결혼은 하였으나 경제적 형편 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부부, 다문

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선발대상이 된다.

신청마감은 10월 14일이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전통 혼례식 예정일에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게 되며, 남원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10월 23일까지 신청(063-630-8932)이 가능하고, 천년송 앞 혼례상을 배경으로 전통혼례 예복사진 및 혼례용 가마타기 체험 등으로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본 행사는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립공원과 와운명품마을의 의지가 담긴 행사"라며,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